

#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성과'...다음 과제는 '인간과 공생'

### 국립공원공단, 방사 반달가슴곰 지난해 기준 85마리 최대치 기록 57마리 행방불명 민간 피해 잇따라...공존 위한 새로운 대책 필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반달곰)복원사업이 반달곰 개체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달곰에 의한 민간 피해가 이어지면서 '인간과 공생'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 러시아 도입 개체 방사를 시작으로 반달곰 복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기준 85마리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곰 개체군을 자체 존속이 가능한 개체군인 최소 50개체까지 증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반달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북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부 서식 야생곰을 도입해 개체군을 늘리고 있다.

공단의 복원사업 이후 개체수는 2005년 2배 이

상인 15마리로 늘어났고 2015년 38마리, 2018년 61마리, 2022년 79마리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달곰은 가슴에 V자형 흰털이 있고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목 주변에 갈기가 있다. 발에는 길고 강한 발톱이 발달해 있어 나무를 잘 타며 뒷 발바닥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평균 몸 길이는 130~190cm이며, 꼬리는 10cm 정도다.

1970년대 지리산에서 쉽게 목격됐던 반달곰은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2004년 6마리에 불과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야생동물은 100년간 생존확률이 95%를 넘어야 자체적 생존능력을 가진 개체군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 반달곰의 존속 가능성은 2%에 불과했다.

당시 반달곰 멸종 시점은 2023년으로 추정됐다. 이에 공단은 반달곰이 자체적 생존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복원 대



2021년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보전원이 반달가슴곰 동면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새끼 반달가슴곰. <국립공원공단 제공>

상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인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정해졌다. 반달곰 복원 사업과 함께 야생으로의 방사도 이

어지고 있다. 2004년 구례에 6마리 방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1마리를 방사했다. 구례지역은 30여마리로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산청, 하동) 중 가장 많은 수가 방생됐다.

하지만 반달곰 방생과 동시에 반달곰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방생 인근 민가에서 반달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반달곰 89마리 중 32마리에 한해서만 위치추적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마리는 위치추적기 배터리 소진 및 발신기 탈락 현상으로 미작동되고 있었다. 이외 자연 출생해 발신기가 없는 개체도 38마리에 달했다. 자칫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위치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반달곰으로 인한 피해는 2020년 38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올해까지 1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벌꿀과 과수, 기물 파손 등이 대

부분이다. 지난 8월에는 구례군 구례읍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반달곰 추정 동물을 만나 달아나 다 부상을 입었다. 여름철이면 활동 반경이 넓어져 양봉 농가로 내려와 꿀을 훔쳐 먹기도 하고, 농가의 동물을 숨지게 하기도 한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광양시 백운산의 공간간에 반달곰이 주방을 어지럽히고 사찰 일부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 13일에는 반달곰이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민가의 닭장에서 닭을 잡아먹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정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립공원 안에서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며 "국립공원이 본래 야생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만큼 인간과 반달곰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최근 한결음 가게에서 열린 '의류교환파티' 행사 모습.

## 다시 쓰고 고쳐 쓰며, 물건의 쓰임과 순환 고민

### 광주일보사·유어스텝, 자원순환 실험실...24~25일 한결음가게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이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결음가게에서 열린다.

22일 한결음가게(충장로 45-2 2층)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쓸모를 찾는 시간-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 순환 실험실'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일보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4일 오후 1시 30분에는 '고쳐 쓰는 마을, 다시 쓰는 삶-도시에서 재사용 문화의 회복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한결음 집담회'가 2시간 동안 열린다.

집담회는 국제 수리·수선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 재사용 문화 확산의 중요성과 도시에서 재사용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오늘날 자원의 쓰임과 순환을 토론해 보는

자리로 준비됐다.

집담회에는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유혜민 수리상점점수 대표,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센터장이 참여한다. 집담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리상점점수 호우호우팀이 진행하는 '리페어 워크숍-우산 수리'이 열린다.

이날 워크숍은 우산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비바람에 부러진 우산 살대를 스스로 고쳐보며 간단한 수리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다. 우산을 고쳐보고 싶은 참가자들은 고장 난 우산(우산 살대 고장)을 가지고 참여(참가비 5000원)할 수 있다.

기사문의는 한결음가게로 연락하면 된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 비건페스티벌

###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11월 9일 동구 인문학당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Vegan)' 음식과 제품을 맛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는 다음달 9일 광주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제3회 광주 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비건 생활 양식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과 가치소비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점도 한 이유다.

행사에서는 비건 햄버거·만두·잡채 등 비건 요리와 설탕과 밀가루 없이 만든 빵과 디저트, 진도 미역·곡성 자연농 등 우리 지역에서 나온 자란 식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천연 염색 소창수건과 수제 비누 등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채식평화연대의 동물권 보드게임 및 비건 교육, 바리 문영숙의 춤극 비나리, 정인봉의 오키나 공연도 펼쳐진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비건 영화제도 열린다. '희망의 식탁'과 'HOPE' 등 비건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시월에 평화를 외치다' 윤상원기념관 음악회

### 24일 광산구 윤상원기념관 야외

가을을 맞아 윤상원 기념관에서 야외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사진>

22일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윤상원기념관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윤상원기념관 야외에서 시월에 만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시월에 평화를 외치다'로 민주·정의·인권을 간절히 외쳤던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음악회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기악곡과 성악곡이 선보여진다.

테너 김주형, 바리톤 공병우,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 첼리스트 나운주, 소프라노 나혜성, 메조소프라노 김유정, 피아노 김보람 등이 무대에 올라 송



고한 정신을 기리는 선율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병문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평화와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회를 통해 윤상원기념관이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시민사회활동가 재충전 위한 '최홍업 지원금' 후보자 모집

### 광주환경운동연합 25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사회활동가 재충전을 위한 '최홍업 지원금' 후보자를 모집한다.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홍업 지원금 후보자를 오는 25일 까지 모집한다.

최홍업 지원금은 지역활동가들의 활동 지속성을 응원하고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홍업 의장의 기금 출연에 여러 후원자들의 기금이 보태져 마련됐다.

지원금은 광주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 활

동가에게 수여된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경력 5년 이상인 광주지역 활동가이며,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0만원씩 2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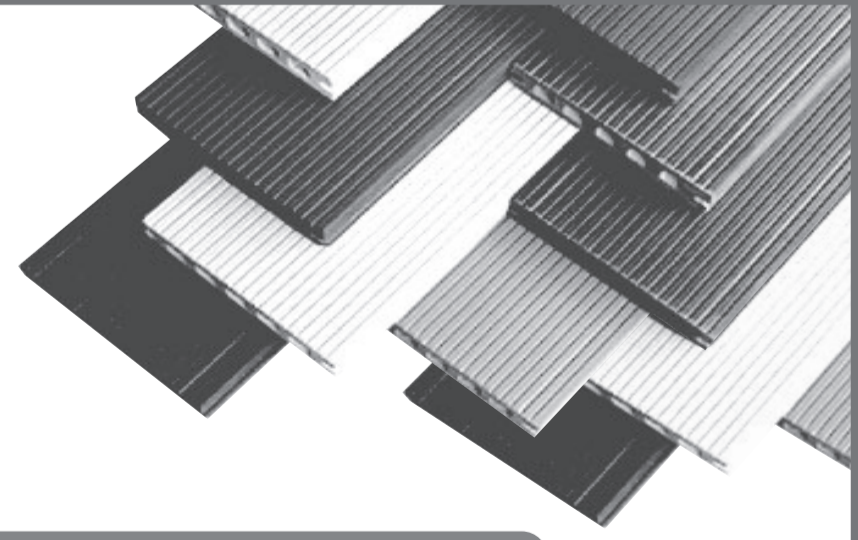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접수방법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11월초에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양식 등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